

관료·전문가 전진 배치... 정책 성과 내기



진영 박영선 박양우 김연철 조동호 최정호 문성혁

7곳 중 5곳 학계·관료 출신... 국정 동력 살리기 초점 비주류·중도 발탁 '탕평'... 진보 野, 개혁 드라이브 주문

문대통령 개각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후 최대인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이로써 18개 부처 가운데 초대 장관은 법무·보건복지부·외교부 등 3곳만 남게 됐으며, 명실상부한 '문재인정부 2기 내각' 진용이 완성됐다는 평가다.

이번 개각은 학계·관료 출신 등 전문가 그룹을 전진 배치, 정책성과를 통한 국정 동력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특징이다. 통일부 장관 교체 역시 남북관계 정책 성과를 위한 최적화된 인선으로 평가된다. 여권 정치인 가운데 중도 성향이자 비주류로 분류돼 온 박영선·진영 의원이 발탁되며 탕평의 의미를 살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개각은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해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문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왔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경제 성과 부진 및 공직기강 해이 사태, 특별감찰반 의혹 등이 겹치며 청와대 안팎에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힘이 빠지는 흐름이 형성됐다. 이에 따라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정책 성과를 거두 국정 장악력을 높여겠다는 것이 이번 개각의 취지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인사 교체가 이뤄진 7개

부처 가운데 5곳의 수장이 학계·관료 출신으로 정책적 전문성을 최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의 경우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과 통일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낸 통일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로 꼽히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최정호 전 전북 정부부지사도 과거 국토교통부 2차관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도 전문 관료 출신인 박양우 전 문광부 차관에게 돌아왔다.

'LG전자-KAIST 6G 연구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은 조동호 KAIST 교수가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에,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문성혁 세계 해사대 교수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낙점된 것 역시 각 분야의 전문성을 우선시한 결정으로 분류된다. 특히, 현역으로 중용된 진 의원과 박 의

원 모두 경력 많은 중진의원으로서 충실한 '실력'을 쌓아왔다는 점 역시 입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19대 국회에서는 안전행정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박 의원은 국회 기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당내 재벌개혁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과 각종 개혁 입법을 묶어 파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 3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여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을 위해 전략이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전문성이 결여된 개각이라고 꼬집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번 개각을 계기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을 요구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中企·자영업·소상공인 버팀목 되겠다"

박영선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8일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소감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3년차 임중 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 같이 각오를 다졌다. 박 후보자는 "2006년 국민소득 2만달러

를 돌파한 지 12년만에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선진국에 앞장 선 입국했다"면서 "이제 선진국 정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중심경제'로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대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창업벤처기업가,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진정한 친구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대표 경력 문화예술 전문가

박양우 문광부 장관 후보

11년 만에 진정 복귀를 준비하는 박양우(6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어려운 때 중요한 책무를 지명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청문회 준비를 잘 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다. 잘 준비하겠다"며 현안들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30년 이상 문화·예술·관광 분야 정책을 담당해온 박 후보자는 국내 손꼽히는 문화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뛰어난 업무처

리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참여정부 때 46세의 나이로 문화관광부 차관에 발탁되기도 했다.

차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중앙대 예술경영학 교수로 부임해 10년 이상 후학 양성에 힘쓰는 한편 한국예술경영학회,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광주비엔날레 수장을 맡아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비례대표 폐지하자"

선거제 개편안 당론 제시... "의원 10% 줄여 270석으로"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선거제 개편안을 당론을 제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10% 줄여서 270석으로 하자는 게 한국당의 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례대표 폐지는) 전 세계 선진국들이 채택한 제도

라고 설명했다. 그의 이 언급은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손잡고 선거제 개혁안을 파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리겠다는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 같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선거제 개편 전체 판을 흔들겠다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안을 당론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에 대해선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오로지 두 개 나라,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한 제도"라며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내각제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3월 국회' 가시밭길 예고

오늘부터 가동...한국당, 선거개혁·개혁법안 총공세

올 첫 국회인 3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우선 1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들이 연설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차례로 연설에 나선다. 이어 19일부터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안전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5일 연다.

다만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맞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미세먼지 대책 관련 비쟁점법안 7개는 13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한다.

3월 국회 최대 변수는 여야의 '파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대치'다.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과 각종 개혁 입법을 묶어 파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 3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여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을 위해 전략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10일 당론을 발표하면서 아예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른 당과 전혀 협의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은 이번주 파스트트랙 추진에 본격 나서고 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사법개혁안을 입맛대로 조정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차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법특위)도 따로 구성했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이나 장외투쟁까지 거론하며 파스트트랙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보이콧' 없이 의사일정에 참여하며 공세를 펴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김태우·신재민 의혹'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관련 상임위에서 파헤치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핵 담판 결렬에 따른 책임을 정부·여당에 따지겠다고 버리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돌아온 '문대통령 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직 맡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0일 "양 전 비서관이 이해한 대표로부터 지난 1월 중순께 원장직을 권유받았으나, 고사를 거듭하다 범여권 여러 인사들의 설득 끝에 결국 50여일 만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양 전 비서관은 원장직을 최종 수락하기에 앞서 민주연구원의 기능, 자신의 업무 범위와 당내 역할 등에 관해 이 대표와 깊이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



다. 이어 당청 인사들의 한결같은 요청을 고려, 원장직을 맡기로 결심을 굳히고 이 대표를 만나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변 정리를 위해 다시 일본으로 출국한 양 전 비서관은 게이오대 방문교수 임기를 마치는 다음 달 말께 완전히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연구원장 새 임기는 5월 중순 시작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박우량 신안군수 민주당 복당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복당 신청이 최종 허용됐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도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8일 오후 중앙당 당무위원회 심의를 열고 최근 복당을 신청한 박 군수에 대해 복당 허용을 의결했다.

박 군수는 지난해 4월 13일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당했으며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복당을 신청했다. 복당 허용에 따라 전남지역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은 22개 시·군 14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1686.50㎡(510평) 건물:3,000.80㎡(907.74평)
지상2층 매매가:38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 (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55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136.20㎡(41.20평) 건물:265.5㎡(80.3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15억 문화전당역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하남동 (준주거지역)
토지:979.70㎡(296.36평) 건물:1928.89㎡(583.49평)
지상4층 매매가:65억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상권최상, 전시효과최상
- ★ [서구]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434.44㎡(131.4평) 건물: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55억 이마트인근, 상권최상, 전시효과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5700㎡(1700평) 건물:6500㎡(1900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120억
건물2동, 신법적용 350베드 가능
요양원 40베드 별도, 주차장넓음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토지:5,385㎡(1629평) 매매가:60억
투자 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분할가능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64억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 ★ [토지]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15,953㎡(4825평) 매매가:12억1천만
자연취락지구, 10m도로접
- ★ [토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